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아름답게 만개한 코스모스' 선선한 날씨를 보인 5일 전주 항공대대 인근에 코스모스가 만개해 있어 가을의 정취를 느끼게 하고 있다.

도, 미세먼지 대응 예산 역대 최대

내년 정부예산 818억 반영... 올 본예산 대비 2배 ↑ 노후차 조기폐차·전기차 보급 등 다수 사업 증액

전북도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현안 사업비가 대거 반영됐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 예산 410억 원 대비 2배(100%) 증가한 총 818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미세먼지 걱정 없는 전북을 조성하기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이다.

한편 내년 미세먼지 대응 분야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건설기계 분야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 감소를 위한 친환경 전기굴착기 보급 지원(5억원, 53대), 미세먼지 안심관리구역에 대한 생활 밀착형 집중관리사업(1억원, 1.44km) 등이 있다. 특히 미세먼지 안심관리구

역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인구 밀집지역에 사물인터넷 기반 미세먼지 측정과 정보제공, 회피 저감시설 지원 등 생활밀착형으로 미세먼지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전주시 만성동 일원(1.44km)의 사업 성과를 분석한 후 도내 사업대상지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북도는 올해 미세먼지 개선 전국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미세먼지 대응 환경부 종합평가에서도 전국 최고등급을 획득하는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만큼 내년도 국비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도 김인태 환경녹지국장은 "정부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환경부와 기재부 등 관련 부처에 적극 요구한 결과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크게 증액 반영됐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질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력을 발휘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상용차 부품기업 유동성 해소 지원

전북도, 도내 400여 업체 수혜

전북도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상용차 부품기업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회사채 발행 및 이자 지원과 함께 퇴직 인력 재취업 지원에 나선다.

도는 3차 추경을 통해 출연금 10억원을 확보하고 도내 상용차 부품기업 대상 유동성 공급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정부(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회사채 발행지원 프로그램(P-CBO)'에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앞서 전북도를 비롯한 전국 8개 지자체와 신용보증기금은 지난해 12월 1,7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동차 부품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필요재원 1,700억원은 정부 500억원, 신용보증기금 700억원, 현대차 150억원, 기타 지자체 출연금 등 350억원을 통해 마련되며 전북도는 지난 9월 3차 추경 시 출연금 10억원을 확보했다.

도는 정부 회사채 발행지원 프로그램 을 통해 도내 상용차 부품기업 중 신용도가 낮아 채권시장에서 직접 회사채를 발행하기 어려운 기업들도 장거, 저금리로 고액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3개월 단위로 이자를 납부(고정금리), 3년 뒤 원금 상환(만기 후 차환가능)하며 금리는 기업 신용도에 따라 다르고(2.48%~4.58%), 중소기업 200억원 한도, 중견기업 350억원 한도이다. 조달받은 금액은 대출 만기연장,

R&D 투자, 경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어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출연을 통해 도내 400여 개 상용차 기업들은 회사채 우선권을 통한 자금조달은 물론 금리도 0.2%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북도는 기업의 유동성 지원과 함께 상용차 분야 퇴직인력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임금 지원 등의 사업도 진행하는 등 자동차 산업의 위기 극복에 힘을 쏟고 있다.

도는 도내 상용차 분야 퇴직 인력이 재취업할 경우 채용기업에 1인당 250만원(최대 9개월)을 지원하는 퇴직인력 지원사업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동성 지원사업은 신용보증기금 대표번호(1588-6565)로 연락하면 상담받을 수 있고 퇴직 인력 재취업 지원사업은 각 시, 군 해당 부서로 연락하면 된다.

전병순 도 혁신성장사업국장은 "글로벌 자동차산업 침체로 도내 자동차 산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위기 극복을 위해 도가 적극 지원에 나서고 있다"면서 "앞으로 이번 어려움을 이겨내고 미래차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차근차근 대비하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도교육청, 교육용 노트북 보급 내년까지 도내 전체 학교 대상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학교 내 모든 학습 공간에서 원격교육 및 온·오프라인 융합교육에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전체 교실에 무선 인터넷 환경을 구축한다고 5일 밝혔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원격 수업 운영, 다양한 학습 동영상 활용 등 대용량 학습콘텐츠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저성능 네트워크 장비와 노후된 학내 전선망을 개선하고 있다.

학생들의 프로젝트 및 토론 활동 등 다양한 학습모형을 유연하게 적용 가능하도록 학교별 1~2개 학급이 이용할 수 있는 수량의 노트북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초등학교에 교육용 노트북 8,026대를 보급 완료했고, 2021년까지 도내 모든 중·고·특수학교까지 보급할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전주시 '위기가구 생계지원' 5부제로

2차 재난지원금 12일부터 온라인으로... 최대 100만원

전주시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어려워진 위기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정부 4차 추경에 따라 이달 12일부터 30일까지 '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을 온·오프라인으로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과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기준 중위소득이 79% 이하(4인 가

구 기준 356만2000원)이면서 재산이 3억50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가 다.

다만 기존 기초생계 급여 및 긴급생계 지원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소상공인생계희망자금 ▲ 폐업준비 재도전 장려금 ▲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 청년 특별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 구직급여 등 정부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소득, 재산 소득 감소 등의 확인 조사를 거쳐 11월 중순 이후부터 연말까지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된다.

신청 방법은 12일부터 복지포 홈페이지(bkgru.gokr)에서 휴대폰 인증 후 세대주가 신청하면 된다. 현장 신청의 경우에는 오는 19일부터 주소지 등 주민센터에 세대주, 동일세대 가구원, 대리인 등이 방문하면

된다.

시는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신청을 위해 요일제 접수를 운영한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토요일 홀수 ▲일요일 짝수로 신청 받으며, 토·일요일의 경우 온라인만 운영된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구의 생계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며 "각종 지원사업을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성 기자

The Best Glocal University

알찬 대학 따뜻한 동행

전북대학교는 우수 학생 유치와 교육, 연구 경쟁력 등 대학운영 전반에 걸친 시스템과 체도를 개선해 알찬 대학으로 나아갑니다. 분권과 공감, 융합으로 대학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과 따뜻하게 동행하며 미래 100년을 향한 초석을 놓겠습니다.

전북대학교가 지역과 함께 세계로 나가겠습니다.